



헝가리

I. 일반개황

면적	93천 km ²	G D P	997억 달러(2004년)
인구	10백만 명(2004년)	1인당 GDP	9,941 달러(2004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Forint(Ft)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 (달러당)	202.75(2004년 평균)

- 1980년대 후반부터 체제전환을 시작하였고, EU, OECD, 여타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도적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OECD(1996), NATO(1999)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에는 EU에 가입함.
- 동국은 안정된 정치 및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불안 요인은 별로 없으며, 국제신인도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초에 활발하였던 경제활동이 하반기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며, 2005년 중반 이후의 경제회복 여부는 주요 수출시장인 서유럽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될 것임. 2010년 유로화 도입을 위한 경제정책 시행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동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동향

- 저성장 지속: 2004년 농업부문의 생산증가율은 36%에 달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 경제성장률은 4.2%를 기록했음. 그러나 농업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3%로 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됨. 2005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서유럽 국가들의 저성장이 예견되고 내수위축과 산업생산 및 투자 위축이 겹쳐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물가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 소비자물가는 2002년 이후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2004년 하반기 이후에는 통화 강세, 임금상승률 둔화, 농작물 풍작으로 인한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상승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비용의 증가로 2005년 3월 국내 산업생산자 물가가 10%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재정적자 축소가 최대 경제현안: 2004년에는 재정지출 억제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축소(5.7% → 5.4%)되었으나, 여전히 GDP의 5%를 상회하고 있어 Maastricht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2005년 1~5월 중 재정수지 적자는 8,380억 포린트로 이미 연간 적자 목표치의 82%에 도달함. 정부는 금년 5월 초 총리 주도의 "Programme of 100 steps"이란 재정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다소 의문시됨.
- 2005년의 산업생산증가율 둔화는 재정수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부족, 2006년 5월의 총선을 앞둔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목표치(GDP 대비 -4.7%)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통화정책 : 2004년에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자 유인으로 포린트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7%의 강세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국제금리 상승추세로 단기적인 포린트화의 가치하락이 우려되면서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 제 성 장 률	3.8	3.3	3.2	4.2	3.4
재 정 수 지 / G D P	-3.0	-9.4	-5.7	-5.4	-5.2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9.2	5.3	4.6	6.8	4.0

자료: EIU Country Report, June 2005.

2. 산업구조

- 산업별 대GDP 비중(2004): 서비스업(65%), 제조업(31%), 농수산업(4%)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비중은 1988년 GDP의 42%에서 2004년 31%로 낮아졌으며, 서비스산업은 GDP의 65%, 총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제조업은 서유럽 기업들의 부품 및 조립 생산기지 역할에 특화되어 있음.

3. 대외거래 동향

- 수출증가세 유지: 2004년도에는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부진과 포린트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및 자동차 관련제품의 서유럽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20%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함. 2005년 수출실적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 수출시장인 서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성장 잠재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다 소득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인 6%를 넘고 있는 것이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더불어 동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0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업의 이익 및 배당금의 해외송금, 정부의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증대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도 여전히 8%대를 상회하고 있음.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 상 수 지	-3,236	-4,736	-7,455	-8,820	-9,100
경 상 수 지 / G D P	-6.2	-7.3	-9.0	-8.4	-8.0
상 품 수 지	-2,237	-2,119	-3,279	-2,922	-3,100
수 출	31,081	34,792	43,475	55,368	65,600
수 입	33,318	36,911	46,753	58,290	68,700
외 환 보 유 액	10,302	9,721	12,015	15,312	-
총 외 채 잔 액	30,305	34,958	45,785	59,637	69,300
총 외 채 잔 액 / G N P	58.5	53.9	55.4	57.2	66.1
D S R	13.1	13.5	13.1	16.3	15.8

자료: EIU Country Report, June 2005.

-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내수경기 부진으로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FDI 유입이 2004년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음. 이는 실물경기 호전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책(Smart Hungary Plan)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헝가리

중앙은행(NBH)에 의하면, 2004년 FDI 유입실적은 전년 대비 15억 유로가 증가한 33.6억 유로(2001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EU의 경기부진으로 2004년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25억~30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III. 정치·사회 동향

1. 대통령 및 총리 교체에도 정권안정 유지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2002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청년민주연합(Fidesz)이 연임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헝가리사회당(MSZP)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음.
- 2004년 8월에는 당시 총리였던 Peter Medgyessy가 사임하고, 후임으로 Ferenc Gyurcsany(MSZP 출신)가 임명되었음. 2005년 4월에는 Gyurcsany 총리가 재정적자 관리 실패를 이유로 Tibor Draskovics 재무부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Janos Veres(MSZP 출신)를 기용하였음.
- 2005년 6월 7일 대통령(5년 임기) 선출을 위한 의회선거에서 여권 연합정당(MSZP, SZDSZ)이 단일후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보수성향의 야당연합(Fidesz, MDF)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었음.
- 2005년 들어서도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 연합정당의 주도세력인 MSZP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초에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보수성향의 중도우파인 Fidesz는 47~55%로 34~44%를 기록한 MSZP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 적은 편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로 계층간의 갈등요인은 있으나,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요인은 적은 편임.
- 2005년 3월 농업보조금 지급 지연 및 적은 지급규모 등으로 농민들의 가두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2005년 말까지 375백만 유로(5억 달러)의 80%에 해당되는

보조금 지급에 합의하고 일단락되었음.

3. 대외 협력관계 강화 모색

- 기존 EU 회원국과는 개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에는 프랑스와의 양자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였음. 특히, 중국의 대 EU 판매거점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는 무역과 투자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 헝가리 의회는 2004년 12월 20일 EU 헌법 비준안을 의결하였으며, 헝가리 정부는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ECA 지원 태도

- US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재량한도 없음)
- Germany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S&P : BBB+ (2000. 2) → A- (2000. 12)
 - Moody's : A3 (2000. 11) → A1 (2002. 11)
 - OECD : 2등급 (2004. 1) → 2등급 (2005. 1)
 - I.C.R.G : 43/140 (2004. 5) → 52/140 (2005. 5)
 - Euromoney : 36/185 (2004. 3) → 38/185 (2005. 3)
 - I. I : 37/172 (2004. 3) → 41/173 (2005. 3)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전망은 다소 부정적임.
- S&P는 6월 초 국내통화표시 Sovereign rating을 장기 A-1, 단기 A-2로 각각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전망에 따른 것임. 금년도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초과하는 재정적자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특히 S&P는 추가적인 재정수지 악화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부정적인 평가 가능성도 예고함.

3. 해외자금조달 및 대외지급능력

- 200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7.1억 달러, 중장기 5.8억 달러로 총 12.9억 달러에 달함. 이중 연체금액은 1.7억 달러로 전체의 13.5%이고 이탈리아 SACE에 대한 연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리스케줄링 실적은 없음.
- 정부의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2004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중은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GDP의 지속적인 증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양호한 외화차입 조건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하면 외채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말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6.3%로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증가하였지만 외채원리금 상환실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V. 종합의견

- 거시경제 환경변화 및 개선속도가 주변 경쟁국인 체코,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에 비해 더딘 편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과도한 적자수준이 주요 경제현안이자 해결과제임.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중앙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 실패의 반복은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 2004년 8월 총리 교체, 2005년 6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06년 5월의 총선(의회) 일정 등으로 정치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권불안의 가능성은 적으며, 국제신인도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전망은 다소 부정적임.

【최 은 경】